

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임대환	소속(학부/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파견 학기	2019-2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나이아가라 컬리지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일본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경험을 쌓는것의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생활하며 그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생활을 하면서 저의 시각을 넓히고 현지 영어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었기에 지원하며 관심을 가져서 캐나다 나이아가라 컬리지로 교환학생을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캐나다 출국전은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맞추어서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겁니다. 현지에서 홈스테이 배정이 파견되는 학교 차원에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항공권 구입은 파견을 진행해주는 교육기관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저는 자체적으로 사이트에가서 가격 비교를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air canada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 어플을 통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서 함께 파견가는 인원과 함께 개별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캐나다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온타리오주 웰랜드에 위치해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저희 본교보다 넓게 구성되어 있고 학 건물로 여러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동할 때 편리하였습니다. 웰랜드는 나이아가라 지역에 있는 도시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시내에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고 환승 또한 가능하여 시내를 투어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버스를 이용하여 토론토 그리고 미국 버팔로까지 갈 수 있어서 여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적인 대도시는 아니지만 근처 세인트 캐서린과 나이아가라 펄스 그리고 온더레이크도 있어서 이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편이 주말에는 5시에 마무리 되기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에 살고 있기에 지역내 편같은 곳도 자주 들르면서 추억을 쌓고 또한 메릿 아일랜드의 조깅길은 웰랜드 운하를 따라 걷기에 최고 였던 것 같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전공집중과는 다르게 어학집중으로 EAP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강하며 말하기 연습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AP과정은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마지막 5단계를 졸업하면 본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본교입학을 위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단계에 배정되고 졸업을 하면서 본교 입학 조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 후 2틀정도 시험을 응시하여 배정이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구성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숙소는 홈스테이로 나이아가라 컬리지에서 배정이 됩니다. 본교에서 진행하는 설문을 기반으로 배정이 되며 매달 750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양문화에 관심이 많고 너무나 좋으신 홈스테이에 배정이 되어 함께 파티도 하고 식사때마다 영어를 구사하며 너무나 고마운 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 대해 파견생들은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의무적인 기간을 마치고 학교 주변에 렌트를 통해 거주하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식비가 해결이 되었기에 한화로 60만원 정도 매달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 생활하며 이정도 비용이면 쇼핑과 여행에 문제가 되지 않게 생활 할 수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팁문화가 있고 텍스가 13%로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 외식비가 비싸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생활하시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인터네셔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온더레이크, 그리고 캐나다 축제를 즐길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원더랜드에도 갔다오며 매주 진행되는 액티비티에 참가하며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액티비티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항상 신청하며 활동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매주 신청을 하지 못하면 참가를 할 수 없기에 신경써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도서관 앞 강당이 저희 교환학생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곳이 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카페테리아에서의 추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또한 시설이 잘 되어있어서 수업 마치고 꾸준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헬스 기구보다 더 다양하게 설치 되어있기에 유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1층 건물에 맥주와 푸틴을 파는 장소가 있었는데 큰 스크린과 함께 운동경기를 보면서 즐길수 있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서양권과의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팁문화에 익숙하지 않기에 출국전 이에 대해 공부해가셔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가정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학생별로 상이하였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 구성원들도 모르실 겁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샤워 시간과 빈도등에 대해서 꼭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캐나다는 대부분 샤워시간이 10분 이내에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번정도 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아침 운동과 수업마친 저녁에 대해 두 번의 샤워가능 여부를 여쭙어 봤고 음식에 대해서는 한국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먹어 보고 싶기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가정은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에 제가 요리를 해드릴때도 있었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항상 상비해주셨지만 음식에 도시락에 대해서 타인원은 항상 샌드위치를 받은 인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요리로 항상 준비해주셨지만 이에 대서 본인이 먼저 요구하기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인원별로 다르게 준비하였지만 함께 가게된 형과 저희는 미리 조사하여 한국에서 유심 구매를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메인 통신사인 AT&T와 BELL 과 함께 지원되는 유심을 구매하여 어느 곳에서든 잘 터져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타 인원들은 캐나다 내에서 구매하였지만 데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수 였고 요금 또한 저희 보다 저렴하였지만 저희는 무제한 요금제인 반면에 타인원은 아끼면서 하기에 한국내에서 구매하시길 권유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캐나다 교환학생은 어렸을 때 서양권 유학에 대한 꿈과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경험 그리고 영어를 기반하는 국가이기에 영어에 대한 자연스런 공부등 너무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 마주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문화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된 교육이 잘 된 캐나다에서 저는 인종차별같은 것을 못느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두려워 할 수 있다하지만 영어 또한 수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한국 교환학생 중 유일하게 최종단계에 배정되고 EAP과정을 졸업하여 나이가 가라 켈리지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토익과 시험성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있었지만 회화를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세이

를 작성하고 문화에 대한 비판 PT 팀발표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웰랜드가 미국 그리고 토론토와도 가깝기에 여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예정 파견기간 보다 먼저 출국을 하여 퀘벡 토론토 오타와 킹스턴 몬트리얼을 여행하였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행하면서 물어보고 한국에 대해 소개도 하고 다양한 도시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그리고 추수 감사절 방학 기간에 미국 뉴욕과 버팔로를 여행하면서 높은 빌딩과 막대한 뉴욕생활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교환학생과는 다르게 미국과 캐나다 여행만 가능하다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고 각 도시마다의 특징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있던 시간이 었습니다. EAP 과정 졸업을 하게 됨으로써 본교입학을 할 수 있었기에 추후에 캐나다 유학 또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